

# 오경박사 왕인을 상징하는 젊은 다리

## - 무영대교 -

이영천 | 작가

엑스트라-도즈드교(Extradosed Bridge)는 1980년대 일반화된 기술로, 다리 중 가장 젊은 형식이라 할 수 있다. 형교의 경간을 늘리기 위해 사장교 원리와 공법을 빌려 쓴 융·복합형 교량으로, 사장교보다는 연속보의 형교에 더 가깝다. 무안 일로읍과 영암 학산면을 잇는 무영대교는 '1면식 연속 5주탑 ED교'로, 곡류하는 영산강을 빗각으로 횡단한다. 우리나라 최초 연속 주탑을 채용한 ED교로, 무안과 영암에서 각각 글자씩 가져와 '무영(務靈)'이라 이름 지었다. 주탑 간 경간은 165m, 양 끝은 교대에서 100m로 총길이 860m다. 주탑 5개가 연속되는 모습에선 형교의 연속보가 잘 느껴지지 않도록 설계되었다. 얼핏 보아선 작은 주탑 5개가 연속하여 서 있는 사장교처럼 보인다.



영산강을 횡단하며 무안과 영암을 잇는 무영대교. ©이영천

### 차(茶)를 철학의 경지에

무안 삼향읍 왕산리 봉수산은 '초의선사' 태생지다. 시대의 천재이자 대선사로 칭송받는 선사는 살아선 호남팔고(湖南八高)로 추앙받았다. 시·서·화에 두루 능한 달인삼절(達人三絶)이기도 하다. 향기로운 우리 차를 새로운 반열에 올려세운다. 중국의 <다경요체>를 초록, 차에 관한 모든 것을 담고 있는 <다신전(茶神傳)>을 짓는다. 다신전의 일부 오류를 바로잡아 우리 풍토와 기후에 맞게 쓴 글을 추가해 <동다송(東茶頌)>을 짓는다. 우리 차를 찬 하는 노래이자 서사이며, 철학서이자 교과서다. 효능과 차에 얽힌 이야기, 생산지, 보관과 품질, 사용하는 물, 차 만드는 법 등을 고루 담아낸다.



무안군 삼향읍 왕산리 봉수산 아래 초의선사 태생지. ©이영천

초의는 차를 통해 하나의 그윽한 철학적 세계관을 구축한다. '일여(一如)의 미(美)로 '禪茶一如(선다일여)'라 했다. 선(禪)과 차가 하나로 귀결된다. 참선을 모르면 은은한 차향의 세계도 모른다. 차 맛을 제대로 알려면 참선을 통해 깊은 수행의 경계에 들어야 한다. 차로 마음을 씻어내고, 고요히 생각에 잠기는 선의 경지에 이른다.

이는 곧 삶과 죽음의 철학으로 이어진다. 삶과 죽음이 하나로 귀결되는 '生死一如(생사일여)'의 세계관이다. 살아가는 것은 끝없는 고해다. 죽음의 길도 이와 다르지 않다. 생사가 다른 길이 아닌, 하나의 과정 안에 놓여 있다. 삶과 죽음이 하나로 합일에 이르렀다. 이는 중생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 중생의 고통을 같이하는 길이다. 차의 깊은 맛과 향이, 삶과 죽음을 울곧게 규정하는 길이 되어 준다. 오묘하고 심오한 철학의 경지다.

### 시대의 천재들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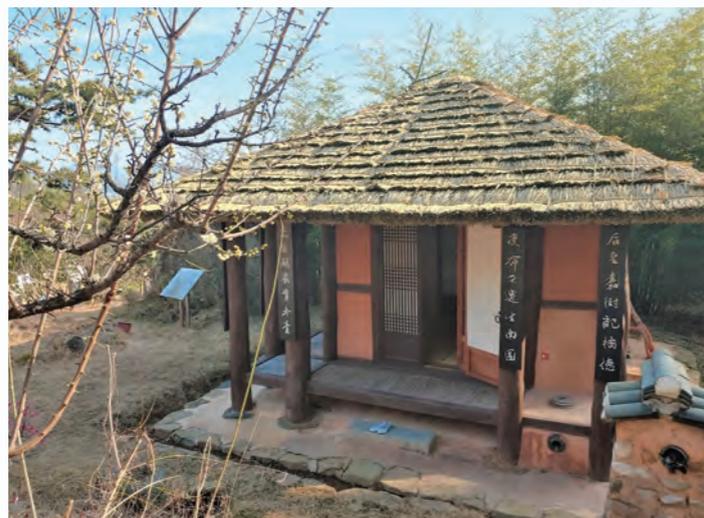
20대 때 강진으로 유배 온 정약용을 만나 오랜 지기가 된다. 다산과 함께 학문을 논하고, 그의 초당에서 백성의 삶을 바꾸고자 고심한다. 실사구시를 현실에 적용한다. 아버지육과 규환지옥에서 신음하는 중생을 벗으로 삼는다. 중생과 함께하는 길은, 관세음보살처럼 천 개의 손과 눈을 갖는 일이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추사 김정희와도 필생의 벗이다. 둘은 같은 해에 태어나, 10년 전후로 세상을 하직한다. 추사는 귀족이기도 했으나, 무엇보다 뛰어난 재주를 가졌다. 학문에서는 무척 오만하고 콧대가 세다. 따라서 사방이 적이다.

하지만 초의는 달랐다. 추사를 만난 초기에는 굳이 맞서 대적하지 않는다. 추사의 고집과 오만, 당당함을 다 품어 안아 준다. 천재는 천재를 알아보는 법인가? 추사는 초의의 깊은 학문을 알아본다. 권력에서 멀어져 제주 대정으로 귀양 간다. 귀양길에도 오만하고 당당한 태도는 바뀌지 않는다. 원교(圓嶠) 이광사(李匡師)가 대표적 피해자다. 대체로 추사의 태도가 그러했다.

초의는 이런 추사를 격의 없는 벗으로 대해 준다. 추사 적거지 대정에서 같이 생활하기도 한다. 추사는 초의에게 수시로 향기로운 차를 보내 달라 떼쓴다. 하지만 선(禪)에 대한 논쟁이 붙으면, 둘의 쟁론은 끝이 날 줄 모르고 했다.

### 남종화와 소치

남종화 대가로 알려진 소치 허련이 초의 제자다. 진도에서 나고 자란 소치가, 그림 공부를 하고 싶어 초의를 찾는다. 초의는 남도 명문가인 해남윤씨 그림책을 빌려다 공부시킨다. 윤선도와 자화상을 그린 윤두서 집안이다. 소치는 그림에는 재주가 있으나, 많은 글을 읽고 몸에 교양이 쌓이면 절로 풍겨 나오는 책의 기운인 서권기(書卷氣)가 부족했다.



해남 두류산 자락에 있는 이름난 암자인 일지암을 태생지에 복원한 모습. ©이영천

이에 경학과 선(禪)을 초의가 손수 가르친다. 그림이 어느 수준에 이르자, 소치를 추사에게 보내 그림과 글씨를 공부시킨다. 추사는 초의의 뜻을 정확하게 읽어낸다. 소치에게 추사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 붓는다. 소치라는 호도 추사가 지어준다. 소치는 이렇게 하여, 우리 화단에 큰 획을 긋는 화가가 되었다. 초의(艸衣)는 '풀 옷'의 다른 이름이다. 선사는 평생 누더기를 입고 살았다. 검소함의 일면을 넘어, 삶 자체가 도의 경지에 이르렀다. 해남 대흥사 일지암은 초의가 만년을 보낸 곳으로 유명하다. 초라한 작은 오두막이다. 화재로 소실된 것을, 1970년대 복원한다. 다도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성지로 여기는 곳이다.

### 왕인 박사, 일본으로

무영대교가 지나는 영산강 건너 영암은, 왕인(王仁) 박사 고장이다. 월출산 북서쪽 군서면 동구림리가 박사가 태어난 곳이다. 박사는 이곳 월출산 책 굴에서 공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왕인 박사 유적지와 월출산. 월출산엔 박사와 관련된 책 굴이 있다. ©이영천

백제 문화는 4세기 말~5세기 초 매우 융성한다. 일본은 백제에 의존하는 처지로, 뛰어난 학자를 보내줄 것을 간절하고 끈질기게 요청하고 있었다. 아신왕 때 태자 '전지(腆支)'가 일본으로 간다. 고구려 광개토왕의 남하를 저지하려는 친교 및 동맹 사절 임무를 겸한다. 일본 태자의 스승이나, 불모 신세다. 전지가 현인이자 대학자인 아직기(阿直岐)라는 설도 있다.

아신왕의 병이 위급에 처하자, 백제는 다급해진다. 태자가 있어야 왕권이 안정되고 나라가 평안하다. 일본 응신(應神) 천황도 애가 탄다. 미개한 일본을 뒤바꿀 만한 경지에 이른 학자라면, 일본도 순순히 태자를 보내줄 처지다. 이에 전지가 왕인 박사를 추천하고, 왕인 박사는 이를 수락한다. 나라의 안정을 도

모하려는 뜻을 이해하고, 왕인 박사는 일본행을 결심한다.

왕인 박사는 영암 군서면 서구림리 상대포에서 도공, 와공, 야공(대장장이) 등 기술자 45명과 함께 범선 5척을 이끌고 일본으로 건너간다. 상대포에서 학산천으로 나와 북으로 영암천에 이른다. 다시 서쪽으로 나와 무영대교가 지나는 영산강을 따라 남쪽으로 빠져 서해로 나아간다. 이곳에서 방향을 틀어, 남해안을 따라 일본으로 건너간다.



영암군 군서면 서구림리의 상대포. 왕인 박사가 이곳에서 도공, 와공, 야공 등 기술자 45명과 함께 범선 5척으로 일본으로 출항한다. ©이영천

사서오경 등 유교의 가르침을 적은 경서와 사기, 문학, 음악오행, 번역서, 의학서, 길흉을 점치는 복서 등을 싣고 간다. 이로써 일본이 눈을 뜬다. 각종 문물이 비로소 움트기 시작한다. 왕인 박사 일행의 도착으로, 미개한 일본이 드디어 문자를 깨치게 되었다. 특히 한자의 전래는, 일본엔 혁명적인 전기였다. 일본은 왕인 박사 일행이 들고 온 문물로 긴 잠에서 깨어나고, 6세기 중반 백제 성왕이 전래해 준 불교로 이윽고 고대국가 틀을 잡게 된다. 비로소 '아스카문화'가 시작된 것이다. 왕인 박사가 가져간 문물이 궁극에선 일본 아스카문화의 원류인 셈이다. 영산강을 통해 일본으로 건너간 선진 백제문물이 그들의 눈과 입, 머리와 옷을 변화시켰다. 일본이 가까스로 야만을 벗어났다. 왕인 박사 선조는 멸망한 한(漢) 나라 왕실 후손이라는 설도 있다. 이게 사실이라면 한·중·일에 뚜렷한 자취를 남긴 가문인 셈이다.

### 일본의 메시아(Messiah)

한반도 삼국시대인 4~7세기를 전후, 한반도 선진문물을 가지고 일본으로 건너간 세력이 부지기수다. 일본에서 현지화한 이들을 '도래인'이라 부른다. 도래인이 없었다면, 일본 고대문화가 발원할 수 있었을까? 이들이 혹 한반도에서 축출된 세력은 아니었을까? 도래인이 일본인 머릿속에 심어놓은, 한반도를 향한 끊임없는 도발 DNA가 무의식에서 지속 작동하는 건 아닐까?

왕인 박사는 어쩌면 일본의 메시아였는지 모른다. 그들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었고, 그들의 아둔한 머리를 깨뜨려 주었으며, 별거벗은 맨몸에 옷을 입혀 준 존재였다. 신령스러운 월출산 자락, 왕인 박사 '책굴'에선 지금도 지혜의 빛이 새어 나오고 있다. 왕인 박사의 밝은 생각이 오늘도 동북아시아에 환한 빛을 비추고 있다. 오경박사(五經博士) 왕인을 상징하는 것인가? 다섯 개 우뚝 솟은 무영대교 주탑이, 영산강 물길을 가로지른다. 이 물길을 타고 바다를 건너갔을 깊은 지혜가, 그 능름한 위용을 동북아에 드러내고 있다. 🇰🇷



영산강을 건너는 '1면식 연속 5주탑 엑스트라-도즈드(ED)'인 무영대교. ©이영천